

char는 문자값을 표현하는 방식 때문에 가끔 혼란을 주기도 한다.

다음과 같은 소스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자.

```
char a1 = 'a';  
char a2 = 97;  
char a3 = '\u0061';  
  
System.out.println(a1);  
System.out.println(a2);  
System.out.println(a3);
```

세가지 모두 'a'라는 문자를 출력할 것이다. 즉 'a'라는 문자값을 위와 같이 'a', 97, '\u0061'과 같이 값을 설정해도 모두 같은 것이라는 말이다.

첫번째는 문자값, 두번째는 아스키코드값, 세번째는 유니코드값으로 표현한 것이다.

